



代 이어 金 도전 슈퍼스타 2세대



여홍철



여서정



이정후



이종범

‘체조’ 여홍철 딸 여서정 도마 1위로 결선 ... 오늘 결승
‘야구’ 이종범 아들 이정후 리그 타율 1위 ... 오늘 출국
‘농구’ 허재 아들 허웅·허훈, 대표팀으로 금메달 도전

아시아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슈퍼스타 2세’들의 활약이 흥미롭다. 지난 21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종목별 예선 겸 단체전 예선에서 여서정(16·경기체고)이 도마 예선 1위에 올랐다.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운동 4개 종목 합계 49.900을 받은 여서정은 특히 도마에서 1.2차 시기 평균 14.450을 획득하며, 1위로 8명이 겨루는 결

선 무대를 예약했다. 여서정이 순조롭게 결선에 진출하면서 ‘대를 잇는 금메달’에 눈길이 쏠린다. 우리나라 도마의 미래로 주목받는 여서정은 ‘도마의 신’ 여홍철(47) 경희대 교수의 둘째 딸이다. 광주체고 출신의 여홍철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아쉽게 착지 과정에서 한 발이 넘어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우리나라 기계 체조 사상 첫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주인공이다. 그는 1994년 히로시마 대회와 1998년 방콕 대회 등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도마 2연패를 이루기도 했다. 여홍철은 이번 대회에서는 KBS 해설위원으로 장외에서 딸과 함께 뒀다. 23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도마 결선에서 아버지에 이어 딸이 금빛 착지도 아시안게임 정상에 설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야구에서도 ‘바람의 아들’에 이어 ‘바람의 손자’가 금메달 사냥을 준비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이종범(48) MBC 스포츠 플러스 야구 해설위원의 아들인 넥센 외야수 이정후(20)다.

이정후는 지난 13일 부상 교체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면서 아버지에 이어 아시안게임 무대에 서게 됐다. 뒤늦게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게 됐지만, 이정후는 아버지의 실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실력파다. 광주 서석초에서 야구를 시작해 휘문중-휘문고를 거친 이정후는 프로 첫해였던 지난 시즌 179개의 안타를 터트리면서, 1994년 LG 김재현이 만들었던 고졸 신인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134)을 갈아치웠다. 아버지도 받지 못했던 신인왕을 거머쥔 이정후는 올 시즌에는 0.378의 타율을 찍으며 현재 KBO리그 타율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후는 23일 결전의 무대로 출국해, 26일 대만과 첫 경기를 갖고 금메달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아버지 이종범은 대표팀 코치로 동행한다. 이정후와 함께 교체 선수로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로 선발된 황재균(31·kt)은 이미 ‘2대 금메달’을 이룬 체육인 2세대. 황재균의 어머니 설민경 씨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테니스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배다. 그리고 황재균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어머니 뒤를 이었다. 한편 ‘농구 대통령’ 허재(53) 남자 농구 대표팀 감독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두 아들 허웅(25·상무), 허훈(23·KT)과 메달 도전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엄마, 금 또 땀어” 나주 출신의 나아름이 22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로사이클 여자 개인도로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뒤 환호하고 있다. 나아름은 이날 우승으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나주출신 나아름 사이클 마라톤 2연패

女 개인도로 104.4km 2시간55분47초...레슬링 간판 김현우 1R 탈락

나주 출신의 한국 도로사이클 나아름(상주시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 레슬링의 간판 김현우(삼성생명)의 2연패 도전은 아쉽게 1라운드에서 끝났다. 나아름은 22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수방 일대 도로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로사이클 여자 개인도로에서 104.4km 구간을 2시간 55분 47초 만에 통과, 12개국 21명의 선수 중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나아름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도로독주 금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했다. 개인도로는 모든 참가자가 한 번에 출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사이클 마라톤’이다. 나아름은 선두그룹을 유지하다가 4.7km를 남겨둔 오르막 구간에서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데 성공한 이후 금빛 독주를 펼쳤다. 김현우는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77kg급 1라운드 키르기스스탄 악스홀 마크후모도브와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그는 경기 시작 1분 22초 만에 파테르 페닐티와 함께 1점을 내렸다. 이후 그라운드 기술을 내줘 0-3으로 밀렸다. 김현우는 경기 종료 4분 13초 전 2점을 획득해 추격에 나섰고, 경기 종료 1분 56초 전 상대 선수 페닐티로 1점을 추가해 3-3 동점을 만들었다. 김현우는 파테르 공격에서 들어 매치기 기술을 시도했지만 되치기를 당해 2점을 내렸다.

이후 경기 종료 47초를 남기고 2점을 더 내줘 승기를 잃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현우는 인천 대회에 이어 다시 금메달을 노렸지만, 대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도 아시안게임 4회 연속 단체전 우승 꿈을 이루지 못했다. 박경두(해남군청), 박상영(울산광역시청), 정진선(화성시청), 권영준(익산시청)으로 구성된 남자 에페 대표팀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국에 41-45로 져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2006년 도하 대회부터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나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팀인 중국에 탈미를 잡히며 돌아섰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패러글라이딩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수확했다. 한국 대표팀은 22일 끝난 남자 단체전 정밀착륙에서 김진오, 임문섭, 이철수, 이창민, 이성민이 6라운드 포인트 합계 1771를 기록하면서 인도네시아(1104)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밀착륙은 정해진 목표지점에 누가 더 정확하게 착륙하느냐를 가리는 경기다. 포인트가 낮을수록 목표지점에 가깝게 착륙했다는 뜻이다. 이다겸, 백진희, 장우영으로 이뤄진 여자 대표팀도 정밀착륙 단체전에서 6라운드 포인트 합계 2363으로 태국(2045), 인도네시아(212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하자”

도종환 장관 북에 제안...2019 전국체전·광주세계수영선수권 참가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시티 조정-키누 레가타 코스에서 열린 남북 단일팀 조정 경기를 북한 김일국 체육상과 함께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도쿄올림픽을 대비해서 단일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했다”며 “또 더 많이 출전하도록 논의하기 위한 체육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남북은 올해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구성했고, 현재 열리고 있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농구와 조정, 키누 등 3개 종목에서 힘을 합쳤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구성되면 하계 올림픽 사상 최초가 된다. 도 장관은 또 “2019년 전국체전에 북한 참가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출전도 역시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은 전국체전이 100번째 개최되는 해”라며 “1920년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100회째가 될 때는 같이 하면 좋겠

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리 측이 제안한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2019년 전국체전 및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북측이 귀국한 뒤 자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장관은 “10월 초 통일 농구 때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논의를 이어나갈 남북 체육 회담도 정례화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북측의 반응이 나온 것은 없지만 도 장관은 “원칙적인 면에서 생각이 같이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면이 있었는데 일단 북측도 돌아가서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후 좀 더 진전된 실천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전망했다.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저희의 희망 사항이지만 대한체육회나 각 연맹, 선수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 논의를 단계적으로 거쳐 가야 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조정과 키누 단일팀 선수들을 만나 격려한 도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했다. /연합뉴스